

동부대우전자 인수 ‘3파전’

매각가 최소 2천억원…영업망 강점 매출 80%가 해외
이달말 본입찰…대우위니아·글로벌세아·메이디 각축

동부대우전자의 본입찰이 다가오면서 새 주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국내·외 다수 기업이 인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흥행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 매각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최근 매각 예비 실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28일 인수 적격후보를 상대로 본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동부대우전자 재무적투자자(FI)와 DB하이텍 등 동부그룹(현 DB그룹)이 보유한 동부대우전자 지분 100%다. 동부대우전자 매각은 지분 45.8%를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가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업)을 행사하면서 시작됐다. 동부그룹은 지난 2013년 2726억원에 동부대우전자를 품기 위해 FI로부터 1376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FI에 순자산 1800억원을 유지하고, 내년까지 기업공개

(IPO)를 추진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FI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드래그-업권을 행사하면서 매각작업이 개시됐다.

결국, KTB프라이빗에쿼티 등 동부대우전자에 투자한 FI가 연 9% 수준의 수익률(IRR)을 원한다고 가정하면, 동부대우전자의 몸값은 최소 2000억원이어야 한다.

동부대우전자의 매력 포인트는 영업망이라는 평가다. 동부대우전자는 전체 매출의 80%를 해외에서 거둬들여 해외 네트워크가 뛰어나다. 최근 중국 ‘광군제(光棍節)’ 기간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를 3만2000대를 판매하는 등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매각 참여 기업들이 예비실사를 마친 가운데 국내 기업인 대우위니아와 글로벌세아, 중국 메이디 등 외국계 회사가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동부대우전자 개요

동부그룹 (현 DB그룹)편입	2013년
2016년 매출	1조 5,400억원
사업장	국내외 생산법인 4곳 40여개 판매 네트워크
주주 구성(%)	동부그룹 54.2, FI 45.8
매각 이유	2018년 IPO·순자산 1,800억원 유지 실패

대우위니아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가지 무기를 갖고 본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 본사를 비롯해 대우에이텍과 대우위니아 등 주요 계열사들이 포진해 있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지난 7월 본사와 공장을 충남 아산에서 광주 하남산업단지로 이전하기도 했다. 앞서 대우위니아는 2015년 광주에 에어컨과 전기밥솥, 에어워셔 등 소형가전 생산시설도 세웠다.

경쟁자들보다 뒤늦게 예비입찰에 뛰어들 글로벌세아는 동부대우전자의 중남미

네트워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세아는 캠, 망고, 자라 등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제조자개발생산(ODM) 형태로 의류를 공급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아이티를 비롯해 과테말라, 니카라과에 공장을 두고 있다. OEM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잘 갖춰진 동부대우전자의 중남미 영업망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해외기업중에선 일찌감치 글로벌 IB를 자문사로 선정해 동부대우전자를 면밀하게 살필 정도로 중국 메이디의 인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건은 FI의 눈높이다. FI는 향후 인수 조건, 재무·사업 역량 등을 판단해 이들 인수 후보업체들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고용 유지도 변수 중 하나다. 동부대우전자 임·직원은 고용 안정성을 이유로 국내 기업이 인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력이 관건인데 양측의 의지가 강한만큼 합의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광주은행, 동구 아시아음식문화거리 금융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6일 광주 동구청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활성화와 아시아음식점 창업자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구 시청 일원에 조성 중인 ‘아시아음식문화지구’는 문화전당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남도음식 뿐 아니라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구의 명품 관광거리 조성사업이다.

이날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김성환 동구청장, 박종광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

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내에 창업 예정인 동구청 선별 예비창업자들에게 금리우대를 포함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해줄 예정이며, 이를 위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완료했다. 또한 각종 경영정보 지원 및 금융컨설팅을 실시해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동구청과 연계해 성공적인 거리조성을 위해 각종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광주은행 이춘우 영업추진부장은 “광주은행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상생발전과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호타이어 상표권 갈등 법정 가나

유상사용 vs 무상양도 입장차…채권단 “협의 안되면 소송 검토”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19일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와 산업은행이 보낸 상표권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에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박 회장 간 구두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

기 위해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6일, 산업은행은 이달 2일에 연이어 협조 문서를 보냈다.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의 상표권 포기 발언이 무상 사용을 약속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금호산업 측은 당시 구두로 약속한 것은 상표권을 영구히 사용할 수 있

도록 협조하겠다는 의미이지 무상 사용이나 양도를 약속한 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표권은 금호산업의 재산으로 박 회장이 무상으로 주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금호산업 측은 금호타이어가 다른 계열사와 같이 연간 매출액의 0.2%를 사용료로 낼 것을 산업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사용료 지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상표권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결국 박 회장이 상표권 문제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박 회장과 상표권 사용료 협상에 어려움을 겪은 산업은행으로서 이번 기회에 상표권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분위기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달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금호타이어와 금호아시아그룹 간 계열분리도 신청했다.

양측간에는 지분 관계가 없는 데다가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만큼 더는 그룹의 계열사로 남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협의가 안 되면 남은 것은 법적 절차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 주간 증시 포커스

정부 중소기업 육성에 중 소형주 기대감
코스닥 조정 가능…대형주 투자 바람직
IT·제약·바이오·中 소비주 주목해야

최근 코스닥지수의 상승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글로벌 중 소형주의 강세현상이다. 미국증시에서 S&P500지수대비 S&P600 및 러셀2000의 상대적 강세와 일본증시의 경우 최근 중 소형주 시장이 NIKKEI225 지수를 10%이상 초과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IT·제약·바이오와 중국소비주 등 주요 코스닥기업의 2018년 이익증가율이 코스피를 상회할 것이라는 실적호전에 대한 기대감이다. 코스피지수가 올해 IT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사상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했는데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중 소형주로 실적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시장에서 ‘코스닥살리기 대작전’이라 일컫는 수급 및 제도·환경 개선이다. 정부가 개별적인 운용을 보장해야하는 연기금에 사실상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코스닥비중을 2%대에서 10%대로 확대를 강조했다.

필자가 수차례 언급하였듯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11월 들어 코스닥시장에 연기금의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전에 주식비중 확대를 겨냥해 은행권과 증권사 자산 운용계정에서 코스닥150 ETF와 몇몇 대형주에 집중적인 선회매가 이어지며 예상치를 넘는 상승을 보였다. 이에 따라 10월말 690선에 머물던 코스닥지수는 11월 한 달에만 775선으로 11.76% 상승했고 코

스닥 대형주지수인 코스닥150지수는 11월에만 16.8% 급등했다.

최근 코스닥시장의 상승은 대형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에만 쏠린 기술적 인 상승이고 수급상 애곡과 단기과열 정도가 심해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코스닥의 상승은 수급에 의해 과열되기는 했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설비투자확대 및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IT와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육성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제약·바이오, 전기자, 신재생에너지는 관련 정책이 구체화될 때마다 주목 받을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안정화 되고 있는 중국관계를 고려한다면 사드피해주는 중국주해주로 반전되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별종목 선정에 고민이 많은 투자자는 대형주중심의 종목선정이 바람직해보이며 최근 급등에 따라 부담이 커지기는 했지만 일정기간 안정화되면 ETF 분할매수를 통해 개별종목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코스닥지수 상승효과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아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지역 中企 우수제품 공공기관에 홍보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여수서 구매지원 워크숍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진행)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동석)는 지난 16~17일 여수 경도리조트에서 광주·전남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관과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각종 SOC사업과 해당 공공기관의 각종 물품, 용역, 공사와 관련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구매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전남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지원관리자, 구매·

계약담당자,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도 열렸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78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1	16	18	19	24	39	4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882,891,542		9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4,314,180		52	
3	5개 숫자일치		1,435,861		1,967	
4	4개 숫자일치		50,000		102,959	
5	3개 숫자일치		5,000		1,699,786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한샘가맹점

(싱크,불박이,욕실,마루,창호,도어)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